

통일 칼럼

문턱 높이는 북한

우리 정부의 거듭된 화해 손짓에도 북한이 적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김여정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비난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미연합연습, '울지 자유의 방패' UFS가 시작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4월 진수된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았다. 신형 구축함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듯 다중 표적을 조기에 탐지하는 위상배열 레이더의 탐개가 벗겨진 모습이 눈에 띈다. 비록 모자이크로 일부 가리긴 했지만, 전무지휘실과 승조원 생활공간 등도 공개됐다. 최현호의 무장체계통합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우선 한미 연합연습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TV는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은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

이라고 했다. 또, 한미 연합연습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UFS의 야외기동훈련 절반을 다음 달로 연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화해 메시지를 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하지만 돌이아온 건 싸늘한 대답이었다.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의 대외정책 구상을 외무성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 '방랑시인 같은 말'이자,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과의 대결 야망이 대물림 되어 왔다고 쏘아붙였다. 한미연합연습 중단도 거듭 압박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며 대화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적인 위치나, 현재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조치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이 꼽힌다. 북한이 접촉을 거부하는 현실에도, 9·19 군사합의 내용 가운데 비무장지대 내 GP 상호 철수나 유해 발굴 사업 등은 동력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정부가 군사합의 복원에 속도를 냈다가 자칫 우리의 대북 역지력만 약화될 거란 우려도 있다. 해상 완충구역이 다시 적용되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대 포병 부대의 해상 사격훈련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1단계는 핵·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복규
논설위원

기고문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악물운전' 근절

요즘 마스크를 통해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이 심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였는데 출렁고 공룡한 상태에서 운전하는데 힘들었다고 한 경우도 더러 들어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하여 검거하였는데 음주는 나오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여 차량이 비틀비틀 거렸다는 기사도 많이 접했을 것이다. 이처럼 악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지만, 약물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부족하

여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악물'이라고 하면 흔히 마약류를 떠올리지만, 악물운전은 대마,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신경안정제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약물의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과 같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이러한 악물운전을 예방·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당한 운전능력을 하지 못할 우려가



김성환
부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였으나 인식이 부족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 약물 부작용 방지 및 악물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악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

드뉴스를 제작·홍보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의약품 처방·복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악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의사협회 등에서는 마약류, 졸음을 유발하는 약 처방·조제 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이라는 적색문구를 삽입·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 악물운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술만 안 마시면 괜찮다'는 단일한 생각을 버리고, 복용한 약물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설

메이지 유신과 근대 일본

광복 80년을 맞은 요즘 메이지 유신을 거쳐 일본 제국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 근대사와 전후 한·일 관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세기 일본 근대사는 제국주의의 팽창과 침략, 패망에 도달한다. 러·일전쟁 후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중국과 대륙으로 침략을 확장하다가 거대한 늪에 빠져 자멸한다. 도쿠가와 시대 천황은 대대로 허수아비 신세였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군주였던 고메이 천황은 막부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철통같은 막부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메이지 유신의 핵심 세력인 사쓰마번, 조슈번, 도사번의 중하급 사무라이들은 혁명에 목숨을 걸었다. 도쿠가와 시대 일본 영토는 막부 직할령과 약 270개의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번의 주인은 다이묘(大名)였다. 후기 도쿠가와 시대에는

각 번이 독자적인 지역 통치력과 정체성을 갖추었다. 각 번은 영토의 방어를 위해 '일본'이라는 국가적 개념과 자신들의 '번국'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커지며 번의 충성 대상이 다이묘에서 천황으로 바뀌는 존왕사상(尊王思想)이 널리 퍼졌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1871년 메이지 천황이 다이묘들을 소집해 번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 직속의 현을 설치하도록 선언하며 중앙집권적 근대국가로 급속히 재편됐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 직후인 1870년대에는 취화률이 25~50%에 머물렀지만, 1890년대에는 90%를 넘어섰다. 1905년 무렵에는 남학생의 98%, 여학생의 93%에 이르는 높은 교육 수준을 이루었다. 번 체제에서 이미 형성된 일체감이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큰 힘이 되었다.

신임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전북 출신 방용승 씨가 임명됐다. 방 사무처장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및 전북겨레하나 설립을 주도했고, 지역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한 민간 통일운동가다. 방 사무처장은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통일 운동과 진보 정치 활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인물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2024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북한과의 민간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 민주평통에 새바

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통 상임위원 이력도 있다.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천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 혁신회의의 공동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전북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23년 9월 위촉된 2만 1000여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중이다. 방 사무처장의 주요 이력은 △1964년 출생 △전주 완산고 △전주대 한문교육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남부교류협력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등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